

<숨고르고 쉬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우리에게 내어주기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마무리하며 지인들의 SNS를 둘러보곤 한다. 요새 무엇이 인기인지 갈피를 잡을 무렵 스크롤 중간 중간에 내가 어저께 검색한 운동화와 같은 브랜드의 광고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작은 가구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의 광고가 튀어나온다.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스마트폰 또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해지는 순간이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온라인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사실이다.

《가리고 숨어버리기》는 감시 사회에 대한 자각과 그로부터의 대응으로써 ‘예술적 도피’를 시도하는 전시이다. 전시가 제기하는 물음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필연적인 감시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보이고 보이지 않을지 선택할 자유의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그 선택 또한 강제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가능성이다. 전시는 그 가능성을 무언가로 가리고 어딘가로 숨어버리는 것으로 살펴본다.

이을 작가의 <Don't Believe Me I'm Eul>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 본인을 가리고 그들의 말 속으로 숨어버리는 시도처럼 보인다. 자신이 이을이라 말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로의 말소리에 묻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렇게 숨겨진 작가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궁금해진다. ‘작가’, ‘남자’, ‘여자’, ‘20대’, ‘30대’ 등 무언가로 규정된 존재가 아닌 아무것도 아닌 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은 평온할까.

우리는 늘 무언가로 규정되곤 한다. 의미는 끊임없이 미끄러지며 변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계속해서 말로 생각으로 무언가를 무언가로 규정하며 살아간다. 이을 작가가 그 인간적 규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면, 신승백, 김용훈 듀오의 <년페이셜 포트레이트>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기술의 시선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작업 안에서 10명의 화가는 인공지능이 김용훈의 얼굴로 인식할 수 없는 초상화를 그려낸다. 인간과 기계, 인간과 기술의 공진화를 이야기하는 시대에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년페이셜 포트레이트>는 기술 발전의 가빠른 속도 속에서 심표를 찍고 그 방향성을 점검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두 작품을 지나 만나게 되는 박기원 작가의 <도원경>은 관객이 직접 숨어보는 어쩌면 체험의 장소이다. 수 겹으로 겹쳐진 비닐 사이를 오가며 관객은 잠시 멈추어 숨어보기도 하고 깊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사색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 비닐 사이로 퍼지는 은은한 조명은 끝없이 감시받고 감시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느끼는 긴장감을 잠시나마 잊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고민하며 깊은 숨을 쉬게 해준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에 반하여 가리고 숨어버리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도 혹은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감시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까지나 사실인 채로 남아 있을 것이며,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두려움의 감정 또한 우리 곁을 맴돌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 이유로 우리는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하다. 도처에 놓여있는 위협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곳도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잠시 경계에서 벗어나

숨을 내쉴 공간을 찾게 된다.

그런데 왜 숨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긍정되지 않은 채 부정되었을까? 서로의 침조차, 잠시 숨고르는 시간조차 감시하는 사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닌지 되물을 필요가 있다. 가령 <Don't Believe Me I'm Eul>를 보며 기어코 이율이 누구인지 생각해보거나, <넌페이셜 포트레이트>에서 작가와 닮은 구석을 찾아보려하지는 않을까? 가리워진 장막을 찢히고, 숨어버린 이를 끝없이 무언가로 호명하는 것 역시 우리가 아닐지 전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만든다. 숨고 싶은 누군가에게 쉴 장소를 내어줄,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 내버려 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그 이유조차 묻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감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숨어있는 누군가를 보면 잠시 멀리서 지켜보는 것 또한 함께 살아갈 공리를 하는 것이라 변명하며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내어본다.

글_강부민